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h1>보도자료</h1>		 더 가까이 더 다양하게 가족서비스를 선도하는 Kihf	
http://www.kihf.or.kr					
보도일시	2021. 11. 5.(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 2021. 11. 4.(목) 오후 12:00 이후			총 7쪽	
배포일자	2021. 11. 4.(목)	담당부서	가족서비스전문성향상본부 사업기획부		
담당부장	민치경 (02-3479-7660)	담당자	강은정 (02-3479-7663) 배수현 (02-3479-766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년 제2차 온라인 가족포럼 개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전망과 과제 -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 이하 한가원)은 「2021년 제2차 온라인 가족포럼」을 11월 5일 한가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 이번 가족포럼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하여 발표자와 토론자만 참석하는 사전녹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식 유튜브 www.youtube.com/kihfkorea

- 2020년 가족포럼*에 이어 올해 포럼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족생활 및 가족서비스 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가족서비스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 2020년 ‘포스트 코로나 가족서비스 전망과 과제’ 포럼 진행

** 가족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및 일반국민 2,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생활 변화 및 가족서비스 수요,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돌봄 부담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 시행(2021.10.1.~8.)

○ 이번 포럼에서는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실태 및 가족서비스 방향성”을 주제 발제하였으며,

- 코로나19 초기 대비 상담/문화/교육프로그램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며, 기존 가족서비스 중 아이돌봄지원, 가족문화프로그램 등 가족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 자녀의 언어발달 및 사회성 발달 지연 문제, 자녀 학습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 양육자의 돌봄스트레스의 증가 등이 두드러진 변화로 확인되었다.
- 가족서비스 운영방식의 비대면 전환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들은 대체로 비대면서비스를 선호하는 편이나, 서비스 특성별로 돌봄 및 상담서비스 등에서는 대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가족생활 변화 및 가족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비대면/대면 서비스 안착을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의 고도화 및 지역센터 방역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서비스 마련, 개인 및 가족의 심리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위드코로나 시대에 세심한 가족서비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코로나 19 이후 가족생활 변화 및 가족서비스 방향성에 대해 정지영 여주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옥녀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한은주 센터장(강북구 가족센터), 윤성은 센터장(구리시 가족센터) 등 현장 전문가가 돌봄·상담·교육·문화 분야의 가족서비스 세부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 한편,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사전녹화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발제문을 사전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국민 의견은 11월 5일 포럼 영상 공개 시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본 포럼이 가족생활의 변화와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가족생활 변화 및 가족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2021년 제2차 온라인 가족포럼 포스터

【붙임2】 2021년 제2차 온라인 가족포럼 사진

【붙임3】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 실태 및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연구요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2차 온라인 가족포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족서비스 전망과 과제**

일시 2021. 10. 27.(수) 14:00~16:00

장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513호 회의실

▶ YouTube 영상공개 2021. 11. 05.(금)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유튜브채널 www.youtube.com/c/kihfkorea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www.kihf.or.kr

개 회

인 사 말 씀 | 김금옥 이사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 표 **코로나19이후 가족생활 실태 및 가족서비스 방향성**

| 윤소영 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토 론

좌 장 | 정지영 교수 여주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토 론 자 | 김옥녀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한은주 센터장 강북구 가족센터
 윤성은 센터장 구리시 가족센터

본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녹화된 영상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붙임2

2021년 제2차 온라인 가족포럼 사진



붙임3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 실태 및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연구 요약

□ 연구개요

- 연구명: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 실태 및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연구
- 연구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족서비스 이용현황을 알아보고 변화된 가족의 일상 및 가족서비스 수요를 확인함으로써 가족서비스 제공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020년 한가원 「포스트코로나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한국인의 가족인식 조사」 및 기타 유관기관 선행연구 검토
 2. 전문가 자문: 타당성 있는 조사영역 선정 및 설문지 문항 개발, 결과분석을 위한 가족서비스 전문가 활용
 3. 온라인 설문조사: 일반국민 1,500명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코로나19 이후 가족서비스 수요, 가족생활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조사하여 분석함

□ 주요 결과

<가족서비스 이용현황 및 선호도 조사 결과>

- 전체 2,500명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 1년(20.08.~21.08.) 동안 가족서비스 이용자는 1,219명(48.8%)**이었으며, 사례수 대비 여성(57.4%), 30~40대(67.5%, 63.2%),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2인가구(72.4%).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인 이상 가구(58.8%), 다문화가족(96.0%)의 비중이 높게 확인됨
- **[가족서비스 유형별 이용경험(중복응답)]** 가족서비스 중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지난 1년간 교육프로그램 이용자(n=807) 전년대비 1.6배 증가, 문화프로그램 이용자(n=792) 전년대비 2.3배 증가, 상담프로그램 (n=450) 전년대비 3.3배 증가가 두드러진 변화로 나타남
- **[가족서비스 이용빈도]** '20년 대비 지난 1년간 가족서비스 이용빈도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용빈도가 증가한 이유로는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 위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23.6%)'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용빈도가 감소한 이유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있어서(64.3%)'가 가장 많음
- **[프로그램 이용방식]** 각 서비스(교육/문화/상담 프로그램, 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서비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다문화특성화사업) 모두 비대면서비스 또는 대면/비대면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경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서비스 선호도]** 교육서비스는 실시간 온라인교육(61.6%)을, 상담서비스는 실시간 비대면 화상상담(55.9%)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 및 방문서비스

이용시 가장 선호하는 내용은 홀로 있는 자녀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28.1%)로 나타남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생활 변화 및 가족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 매끼 자녀 식사 챙기기, 학습지도 관련, 돌봄공백 대처 등에서 자녀돌봄 부담이 증가(69.9%)한 것으로 나타남. 자녀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는 직접돌봄(60.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돌봄기관서비스 이용(18.1%)이 뒤를 따름
- 또한 자녀돌봄과 관련된 변화로 자녀의 온라인 학습으로 인한 양육자의 스트레스 증가(59.4%) 및 자녀의 언어발달 및 사회성 발달 지연이 발생(52.5%)이 특징적인 변화로 확인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이후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 증가(55.3%), 자녀와 조부모/친척 왕래 기회 감소(64.4%) 등 가족관계 변화가 나타남. 정서적인 영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인한 외부활동 감소(35.2%), 대인관계 심리적 거리 멀어짐(27.1%) 등으로 인한 우울감(3.22점), 고독감(3.15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족서비스 중 향후 위드코로나시대에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아이돌봄지원(53.7%), 문화프로그램(53.4%), 가족역량강화지원(52.6%)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드코로나시대에 새롭게 희망하는 가족서비스로는 개인 및 가족 상담지원, 가족원에 대한 돌봄지원, 자녀/가족/놀이/언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
-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서비스 확산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들은 안정성(3.78점), 익명성(3.74점), 편리성(3.69점) 등의 장점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타인과 관계 맺을 기회 감소(3.69점), 집중의 어려움(3.37점), 기기 구비에 대한 불편함(3.20점)과 같은 단점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

- '결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5.3%)이 '20년(6.7%)에 비해 낮게 나타난 반면,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62.3%)은 '20년(57.7%)에 비해 높게 나타남. 또한 '배우자와 가사 및 자녀양육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48.6%)은 '20년(34.5%)에 비해 높게(14.1%) 나타남

□ 시사점 및 제언

▪ 비대면/대면 서비스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향후 서비스의 안착을 위해서는 비대면서비스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비대면서비스의 확대에 의해 서비스 접근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함. 또한 서비스 특성별로 대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위드코로나를 대비한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마련 및 대면/비대면 혼용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안전한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기획 및 제공 필요**

-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및 자녀 온라인 등교 등으로 인해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자녀의 언어발달 및 사회성 발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의 상호작용, 자녀 학습지도 등 가족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자녀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상담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이용률이 증가함. 이러한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가족서비스 간 프로그램 융합을 통해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함

▪ **결혼 및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주목(코로나19 초기와 비교)**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족 중심의 일상생활이 강조됨에 따라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의 중요성 증가 및 가족관계를 통한 정서적 유대감 충족 등이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배우자와의 공정한 가사분담이 증가하여 가족내 협력기능이 증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및 결혼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가족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가족서비스 운영 방향에 대한 제안**

-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인해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라 가족서비스에서 요구되는 내용 역시 다양화되고 있음. 따라서 다문화, 다자녀, 노인가구, 자녀연령, 재택근무 여부 등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가족서비스의 세분화를 통해 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용성 제고가 필요함. 또한 개인 및 가족의 심리 방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위드코로나 시대에 가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가족서비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